



한국 4강 이끈 환상의 궤적

지난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호주 경기. 연장 전반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넣고 있다. 사진은 프리킥 궤적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 9장을 레이어 합성해서 만들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선수들 메달 사냥 나선다

전국동계체전 25일까지 진행
광주 사전경기에서 메달 6개
전남 금 2·은 2·동 2개 획득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2일 개막한 가운데 대회 첫날 전남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원도 일대에서 22~25일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동계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4278명(선수 2740명·임원 153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루지 등 총 8개의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이중 빙상의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봅슬레이·스켈레톤은 앞서 사전 경기로 진행됐다. 광주는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컬링, 바이애슬론, 산악 등 6개 종목에 출전한다. 참가인원은 124명(선수 70명·임원 54명)이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 사전경기 기간에 열린 빙상 경기의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순항하고 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1개·은메달 2개, 쇼트트랙에서 동메달 2개, 피겨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사전경기에만 총 6개의 메달을 쟁겼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 선수단은 종합 순위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은 루지를 제외한 7개 종목에 215명(선수 126명·임원 8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종합 순위 9위를 목표로 잡은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 등 총 21개의 메달과 총점 300점을 노린다.

전남은 동계체전 1일 차인 이날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바이애슬론에서 금메달 1개,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 1개·은메달 2개·동메달 2개가 나왔다.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일반부 혼성계주 경기에서 티모페이 랍신,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츠, 압바쿠모바 예카테리나, 함해영으로 구성된 전남 선수단은 경기 선수단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여자 12세 이하, 15세 이하부에서 모두 메달이 나왔다. 여자 12세 이하부 클래식 3km에서 장원지(화순초)가 금메달, 이윤주



제105회 전국동계체전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 조다은(왼쪽)과 김찬혁이 22일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소지희(이상 다시초)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15세 이하부 클래식 5km에서는 조다은이 금메달, 전다경(이상 화순제일중)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12세 이하부 클래식 3km에서는 김찬혁(화순초 6년)이 은메달을 따냈다. 김찬혁은 두살 터울 동생 김찬우(화순초 4년)와 함께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했다.

김찬혁, 김찬우 형제를 비롯해, 이번 동계체전에는 전남의 형제, 자매, 쌍둥이 등 다양한 가족 선수들이 참가한다.

남매 사이인 화순초의 백계영(5년)·백지연(6년), 쌍둥이 형제인 성주호·성준상(이상 화순제일중 3년)이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했고, 아이스하

키에는 아레스광양스포츠클럽 소속의 정사랑·정하광 남매, 김수한·김윤아 남매, 김주연·김은성 남매, 이아은·이세영 자매 등이 이날 전북과의 예선전을 치렀다.

23일에는 스키 알파인 여자 일반부 회전 및 복합과 크로스컨트리 프리15km 결승전, 스노보드 여자일반부 하프파이프, 바이애슬론 스피리트 경기 등이 치러진다.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은 지역 선수들이 이번 동계 체전에서 보여줄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 100회 대회를 끝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대회 개최식이 이날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손흥민 호주전 프리킥, 아시안컵 '최고의 골' 후보

AFC '골 오브 토너먼트'
25일까지 팬 투표 진행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호주와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터트린 프리킥 역전 결승골이 대회를 빛낸 '최고의 골' 후보에 올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터진 총 132골 가운데 '최고의 골' 후보 8개를 추려 '골 오브 토너먼트'를 뽑는 팬 투표를 시작했다.

후보에 오른 8골 가운데 손흥민이 호주와의 8강전에서 쏜 기막힌 오른발 프리킥 결승골이 당당히 후보군에 포함됐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전에서 1-1로 팽팽하던 연장 전반 14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따낸 프리킥을 오른발로 성공시켜 한국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AFC는 이에 대해 "한국은 호주와의 8강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동점골이 터지면서 연장전에 들어갔다"라며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을

유도했던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승리를 위한 멋진 프리킥 득점을 터트렸다"고 설명했다.

후보군에는 한국을 상대로 득점을 터트린 장면이 2개나 포함됐다.

한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나온 말레이시아의 파이살 할림의 동점골과 4강전에서 한국을 무너뜨린 요르단의 무사 알타마리의 골 장면이 후보로 선정됐다.

할림은 말레이시아가 0-1로 끌려가던 후반 6분 골 지역 왼쪽에서 각을 좁히던 수비수 김민재(민헨)와 골키퍼 조현우(울산) 사이로 칩슛을 날려 득점했다.

알타마리는 요르단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21분 중앙선 부근에서 불을 가로채 50여m를 드리블한 뒤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어 한국을 무너뜨렸다.

이밖에 일본의 나카무라 게이토,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흐만 가리브, 태국의 수파축 사라파트, 이란의 사르다르 아즈문, 카타르의 하산 알하이드스의 득점 장면이 후보에 포함됐다.

이번 팬 투표는 25일까지 AFC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노장 조훈현 9단, 농심 백산수배서 마샤오춘 격파

260수 만에 불계승

왕년의 '바둑황제' 조훈현(70·사진) 9단이 시니어 바둑 국가대항전에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조 9단은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 최강전 2라운드 본선 8국에서 중국의 마샤오춘(59) 9단에게 26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조 9단과 유창혁 9단 두 명이 살아남은 한국은 요다 노리모토 9단과 네웨이핑 9단 한명씩만 남은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초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조 9단과 마샤오춘의 대결은 시종일관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졌다.

중반 이후 미세하게 앞서던 조 9단은 상변에서 마샤오춘의 실책을 틈타 확실한 우세를 확보해 불계승을 거뒀다.

조 9단은 23일 열리는 본선 9국에서 일본의 마지막 주자 요다 9단과 대국한다.

1969년 이전 출생 프로기사들이 출전하는 시니



어 국가대항전인 백산수배 우승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3연승 한 선수에게는 500만원의 연승 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 2관 파묘, [20주년특가]이프 오리
- 3관 왕가, [20주년특가]이프 오리, 바튼 아카데미
- 4관 파묘, [위드키즈]DMZ 동물 특공대
- 5관 왕가
- 6관 파묘
- 9관 시민덕희
- 7관 씨네커플 도그데이즈, 서울의 봄
- 8관 씨네커플 건국전쟁, 소풍, 애프터: 유혹의 끝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오 14:00) (오 19:00)

마리퀴리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2024년 2월 매주 토요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공연

2024년 광주상설공연(2월)

일시 : 2024-02-03(토) ~ 2024-02-25(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